

갈지 시험대에 올라서 있다. 다행스럽게 악몽 같은 AI도 올해는 빗겨가는 듯 싶다. 이제 남은 과제는 수급조절을 위한 업계의 일치된 모습이다. 앞으로 있을 이사회 그리고 정기총회 전에 수급조절에 대한 대의를 세우고 전체 업계가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값은 떨어지고 사료가격은 높아 어려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숙원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2년 오리산업 전망 “아주 밝다.”



곽동신
라이브뉴스
부장

빠르게 성장을 하던 오리산업이 잠시 숨고르기를 한후 2012년에는 다시 한번 도약하며 성장가도를 달릴 것으로 보여진다.

2011년의 오리산업은 재도약을 위한 숨고르기 과정으로 보여진다. 2009년 오리산업 총생산액이 처음

으로 1조원을 넘어서자 오리협회에서는 이에 발 맞춰 총생산액 2조원 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AI 등 질병문제와 경제불황 등의 이유로 오리고기 소비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오리고기 가격도 낮게 형성됨에 따라 2010년에는 1조 3천여억원, 2011년에도 2조원 달성은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2012년에는 2조원 목표 달성을 기대해 본다.

오리산업은 잠재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 최근 20여년간 꾸준하게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를 보면 오리 사육 마리수는 1990년대에 연평균 34%의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연평균 11%의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10년 전에 비해 150%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오리고기는 웰빙시대에 적합한 식품으로 소비자들로 가장 각광받고 있다. 오래전부터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왔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이다. 소비패턴도 과거 구이와 탕 중심에서 훈제구이 등 다양화되면서 가정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오리자조금사업이 시작되어 다양한 소비홍보를 통해 오리고기 소비를 늘리는데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오리산업이 더욱 성장해 2조원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리고기 소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오리자조금사업을 통해 성장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량을 너무 초과하는 공급은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소비량의 증가에 보조를 맞춰 오리고기를 생산해 나가는 수급 조절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오리협회와 오리자조금을 중심으로 농가들이 합심하여 오리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된다면 오리산업의 2조원시대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2012년에 달성되기를 기대해 본다.